BK21 논문 부정 땐 퇴출 국고 지원금도 물어내야

올해부터 두뇌한국(BK)21사업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논문 중복투고나 표절, 실적부풀리기 등 연구윤리를 어기다 발각되면 해당 연구원은 BK21사업에서 퇴출되고 국고지원금을 물어내야 하는 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연차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는 연구팀은 예산의 20%를 삭감당하고 그 돈은 최상위 연구팀에 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7년간 2조300억원을 지원하는 BK21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BK21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지난해 8월 설치한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BNC)에 의한 첫 평가로 인력양성이나 산학협력, 대학특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의 영역의 목표 대비 실적 및 달성도를 점검하게 된다.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목표로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방대, 특화사업 분야에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BK21사업은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2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74개 대학 569개 연구팀에 매년 2천900억원씩 2조300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BNC는 분야별 전문위원들을 통해 이들 연구팀을 수시로 조사, 분석, 평가해 최하위 점수를 받으면 사업비의 20%를 삭감(핵심 분야는 10% 내외)해 이를 최상위 사업단에 지원할 방침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택지지구 학교 신설 잇단 취소

광주시교육청 "저출산 따른 학생 급감 불가피"

주민들 "등교 등 큰 불편…예정대로 추진하라"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으로 광주지역 신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설학교 건립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시행자와 입주 예정 주민들은 학생 통학불편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학생부족으로 교실이 남아돌 것이 뻔히 예견된 상황에서 계획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학동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가칭 '학동2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던 계획을 최근 취소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이상, 중·고등학교는 24학급 이상 학생충원이 가능할 경우 신설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인근 학교 증축을 통해 학생을 수용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동2초등학교'의 경우 개교 이후 학생 수가 교육부 지침에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인근에 위치한 방림초교와 학강초교에 남은 교실이 많아 설립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에는 H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176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향후 5~6년 후 취학예정인 아동수가 1만3천여명으로 올 취학대상아동수 2만여명의 65%에 그치는 등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신설학교 건립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의 경우 당초 초등학교 9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3곳 등 모두 17개의 학교를 신설하려 했으나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등 5곳은 신설하지 않기로 계획을 바꿨다.

광주시 북구 동림2택지도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등 4개에서 초등학교 2곳으로 2곳의 신설계획을 취소했다.

광주시 남구 진월지구 역시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 4개 학교 신설을 계획했으나 고등학교 설립을 취소하고 초등학교 1곳의 신설계획도 유보했다.

이처럼 택지조성 계획수립 당시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지정된 학교용지에 대한 학교신설 계획이 취소되면서 사업시행자와 입주 예정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학동 재개발조합의 경우 "학교신설이 취소되면 지구 내 학생들이 광주천과 순환도로를 건너 인근에 있는 학교로 등교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월지구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도 "당초 고등학교 부지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아파트부지에 포함시켜 보다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했다"며 계획변경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 현상이 지난 2005년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면서 "미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주말인 지난 12일 오후 국립공원 내장산 백암사무소 앞에서 사찰 관계자가 입장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개인 어른 2천500원·단체 어른 2천200원)를 받고 있다. 백양사는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로 국립공원 내 사찰문화재 관람료 시비가 일자 지난 7일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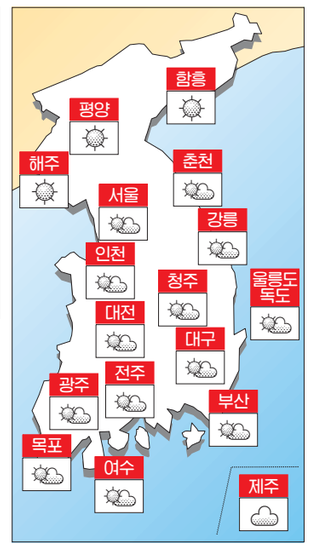
내긴 내는데…

안개 조심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짐.

1월 15일 (음 11월 27일) ◇전국날씨

광 주	맑은 뒤 흐려짐	-2~8℃
목 포	맑은 뒤 흐려짐	-2~7℃
여 수	맑은 뒤 흐려짐	-1~7℃
완 도	맑은 뒤 흐려짐	-3~8℃
구 례	맑은 뒤 흐려짐	-5~7℃
해 남	맑은 뒤 흐려짐	-6~7℃
장 흥	맑은 뒤 흐려짐	-6~7℃
고 흥	맑은 뒤 흐려짐	-5~10℃
순 천	맑은 뒤 흐려짐	-6~8℃
영 광	맑은 뒤 흐려짐	-3~7℃
진 도	맑은 뒤 흐려짐	-1~7℃
전 주	맑은 뒤 흐려짐	-3~8℃
남 원	맑은 뒤 흐려짐	-7~8℃
정 읍	맑은 뒤 흐려짐	-4~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 11:15 22:46 썰물 〈 03:37 17:13
여 수 밀물 〈 06:36 12:50 썰물 〈 18:21 --:--

▲해뜸 07:41 ▲해짐 17:43 ▲달뜸 04:03 ▲달짐 13:4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날 씨						
최저/최고	0/6	0/5	-1/5	-2/6	-3/7	-2/7

당분간 포근…기습한파 자주 온다

다음달 중순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습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14일 기상청이 발표한 '1개월 예보(2007년 1월21일~2월20일)'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와 함께 엘니뇨의 영향으로 찬 대륙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평균 기온이 예년(영하 7도~영상 7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온이 변동 폭이 커져 기습 한파가 찾아올 수 있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1월 하순에는 기온이 평년(영하 8도~영상 6도)보다 높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많겠다. 강수량은 예년(5~27㎜)과 비슷할 전망이다.

2월 상순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지만, 기온은 평년(영하 7도~영상 6도)보다 높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2월 중순에는 찬 공기가 남하(南下)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이 많겠지만, 기온은 평년(영하 5도~영상 8도)과 비슷하겠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오류"

13명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

한국토지공사가 2005년 10월 30일 실시한 제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개 문항이 복수정답이거나 정답이 잘못됐으므로 이 문항때문에 탈락한 응시생들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당시 총 10만9천351명이 응시한 이 시험에서 1,2차 시험평균 60점 이상을 얻지 못해 탈락한 9만2천858명 가운데 두 개의 오류문항으로 당락이 뒤바뀐 응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 원철 부장판사)는 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김모씨 등 99명이 한국토지공사와 건교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김씨 등 원고 13명에게 한 2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시험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A형 64번(B형62번)은 모두 정답 처리되어야 하고, 부동산공법 A형 98번(B형 99번)은 1번과 함께 5번도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며 "이 문항들이 정답 처리되면 원고들이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것은 명백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2차 시험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승소판결을 받은 13명은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시험은 불합격한 응시생으로 1차 시험에서 틀린 것으로 처리된 두 문항이 정답으로 정정됨으로써 합격기준인 1,2차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충족하게 됐다. /연합뉴스

관공서 사칭 전화 사기 외국인 3명 중형 선고

최근 검찰·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관공서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챙기는 신종 사기전화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외국인 사기범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한국인을 상대로 국세나 건강보험금 환급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뒤 수십명으로부터 102회에 걸쳐 4억4천500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콩 국적의 중국 폭력조직원 하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허모(42)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신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씨 등은 마피아·야쿠자와 함께 세계 3대 범죄조직의 하나인 중국 삼합회의 하부 폭력조직 '신의안파'의 조직원들이다. /연합뉴스

'한부모 가정' 올해부터 양육비 소송 무료 지원

올해부터 혼자 아이를 떠맡은 이혼 여성들이 무료로 양육비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올해부터 조손(祖孫)가정과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소송이나 인지청구 소송을 낼 때 무료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지 청구 소송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내가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쪽이 없거나 할머니(할아버지)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한부모 가족,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여성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양육비 소송을 낼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67% "성인되기 전 음란비디오 봤다"

SBS 러브FM(103.5㎒) '뉴스엔조이'는 최근 포털 사이트 시네티즌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음란비디오를 처음 접한 시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5.7%가 "미성년자일 때"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68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음란비디오를 처음 접한 시기가 "고등학교 졸업 후"라고 응답한 경우는 36.4%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이 되기 전인 "고등학교 때"(21.4%), "중학교 때"(17.9%), "초등학교 때"(5.7%), "초등학교 입학 전"(0.7%)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에 가까웠다.

성별로는 남성(30.6%)보다 여성(42.0%)이 "성인이 된 후 처음 음란비디오를 접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남(67.3%)지역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2 가량이 "미성년자일 때 음란비디오를 접했다"고 응답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합뉴스